

고난주간 묵상 자료

2013년 3월 24-30일

이 묵상자료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날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성경말씀은 다 담았으므로 이 자료와 찬송가만 가지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나누어도 좋고 그 날 하루를 이 말씀을 읽고 외고 찬송을 부르며 보내도 좋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가득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가운데 K. W. Osbeck, *Amazing Grace* (Grand Rapids: Kregel, 1990)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수경.

그리니치한인교회 GREENWICH KOREAN CHURCH

38 WEST END AVENUE, OLD GREENWICH, CT 06870
(203) 829-1595 (교회) (203) 829-1595 (휴대폰)
"www.greenwichchurch.net" "koreanchurch@optonline.net"

일요일 (3월 24일)

1)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9:51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리는 종려주일 (Palm Sunday)입니다.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여 이 이름이 생겼습니다 (요 12:13).

주님의 입성은 어찌다 된 일이 아니라 주님의 굳은 결심의 결과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려 오래 전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그 결심이 오늘 종려주일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음의 길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그려보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2) 묵상하며 부를 찬송: “갈보리 산 위에” (135장)

감리교 목사였던 베나드 (George Bennard, 1873-1958)는 어느 날 십자가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어 답답한 가슴을 쓸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찬송시와 곡조를 한꺼번에 주셨고 이 찬송은 발표되자마자 미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갈보리는 골고다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주님은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골고다 언덕을 그리며 찬송을 부릅시다. 십자가가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임을 묵상하며 부릅시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의 틀림없는 고백입니까?

3) 기도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월요일 (3월 25일)

1) 묵상할 말씀: 베드로전서 2:24-25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 왔느니라.

고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를 살리신 고난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기간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저주의 나무에 예수께서 달리셨습니다 (갈 3:13).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께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사 53:5).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주님께 나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2) 묵상하며 부를 찬송: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339장)

화가 및 작가로 멋진 앞날을 꿈꾸다 나이 서른에 병으로 드러누워 삶을 포기한 샬롯 엘리엇 (Charlotte Elliot, 1789-1871)에게 스위스의 전도자 말란 (Caesar Malan)은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없이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에게, 지금 모습 그대로 - 곧 죄인으로 - 나오십시오.” 이 말씀 하나로 주님을 영접한 엘리엇은 여든 두 살로 죽을 때까지 주님을 믿는 기쁨 가운데 살며 150곡이나 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Just As I Am”으로서 빌리 그래함 목사의 자서전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각 절을 부르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묵상합니다.

3) 기도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화요일 (3월 26일)

1) 묵상할 말씀: 이사야 53:4-5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고난이 나 때문인 것을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똑똑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벌을 받고 채찍에 맞으신 분은 주님이시요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은 것은 우리입니다. 내 가득한 죄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2) 묵상하며 부를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1장)

“영어 찬송가의 아버지“ 아이작 와츠(Isaac Watts, 1674-1748)가 쓴 찬송입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벌레 같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나는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일 절을 부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서 이 절을 부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해도 빛을 잃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죽으셨음을 말하는 것이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부끄럽고 고마운 나머지 내 눈에 눈물이 고입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오 절을 부를 때 나를 송두리째 주님께 드린다는 각오를 담았습니까?

3) 기도

주님, 그저 고맙고 고마울 뿐입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수요일 (3월 27일)

1) 묵상할 말씀: 마태복음 27:29-30

가시 면류관을 얹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자처했다는 이유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왕이신 구주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홀 대신 들게 하며 그 앞에 엎드려 “유대인의 왕 만세!”를 외침으로써 조롱하였습니다. 그런 뒤에는 갖가지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조롱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고통을 느껴봅시다.

2) 묵상하며 부를 찬송: “오 거룩하신 주님” (145장)

마틴 루터가 “중세의 가장 위대한 성자”로 칭송한 클레르보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 1091-1153)가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은 오늘날까지 800년 이상을 성도들의 눈에 뜨거운 이슬이 맺히게 하였습니다. 바흐는 하슬러(Hassler, 1564-1612)가 곡을 붙인 이 찬송을 다듬어 그의 대작 “마태수난곡”에 합창곡으로 넣었습니다.

가시관을 쓰고 사람들의 욕을 들으며 창백하게 되신 주님의 얼굴을 그려보며 일 절을 부릅시다. 주님이 당하신 그 능욕이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것임을 되새기며 이 절을 불러봅시다.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나의 고백입니까? 영문은 “O make me Thine forever! And, should I fainting be, Lord, let me never, never outlive my love to Thee!”입니다. 거듭 말한 “Never, never”의 뜨거운 속뜻을 내 마음에도 심읍시다.

3) 기도

주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목요일 (3월 28일)

1) 묵상할 말씀: 고린도전서 11:23-26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곧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바치시는 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찬식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찬식은 죽음을 기리는 예식입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2) 묵상하며 부를 찬송: “내 너를 위하여” (185장)

독일 뒤셀도르프의 미술관에는 슈테른베르크 (Sternberg)가 그린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의 그림 아래에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찬송가 185장은 헤이버갈 (Frances Havergal, 1836-1879)이 이 그림과 글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 만든 찬송시이다 미국의 복음송 작곡가 블리스 (Philip Bliss)가 곡을 붙인 것입니다.

한 절 한 절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3) 기도

주님의 물으심에 대답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을 주옵소서.

금요일 (3월 29일)

1)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19:17-18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문을 나와 골고다까지 가신 길을 사람들은 “슬픔의 길” (Via Dolorosa)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으며 골고다는 사형을 당하신 사형장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길에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슬픔의 길을 가시는 “슬픔의 사람 예수”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2) 묵상하며 부를 찬송: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7장)

이 찬송의 가사는 “영어 찬송가의 아버지” 아이작 워츠 (Isaac Watts, 1674-1748)가 1707년에 쓴 신앙시로서 신학자 매튜 아놀드는 이 찬송시를 가리켜 “영어로 쓴 가장 훌륭한 시”라 하였습니다. 이 찬송을 사 절까지 부르는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뚜렷이 되새길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예배가 더욱 깊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워츠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맡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내 지금 자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비켜 봅시다. 워츠는 또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하였습니다. 나도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3) 기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겪으신 슬픔이 어떤 것인지 저도 느끼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향한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토요일 (3월 30일)

1) 묵상할 말씀: 요한계시록 5:11-14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죽으신 어린 양 예수께 찬양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토요일 하루는 예수께서 무덤에 계셨습니다.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지만 그 죽음이 곧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죽음인 까닭에 아버지와 함께 찬양을 받으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돌리라 말하는지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께 어떤 찬양을 드릴까 묵상해 봅시다.

2) 묵상하며 부를 찬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46장)

이 찬송은 시각장애인이인 크로스비 (Fanny Crosby, 1820-1915)가 만든 수천 개의 찬송 가운데 하나로서 오늘도 못 성도들에게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히 13:15-16).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 무엇을 찬양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며 부릅시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바로 이 절가사처럼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이 찬송을 통해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심을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기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옵소서.